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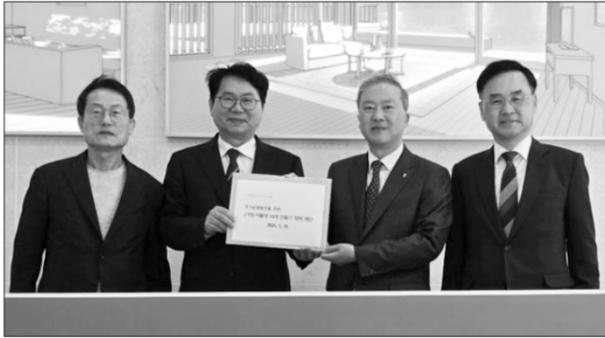
# 서울대 10개 만들기 본격 추진되나

(가칭)

### 양오봉 전북대 총장 등, 민주연구원에 정책 제안 전달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지방살리기 일환으로 적극 활용" 양 총장 "차기 정부 국가전략 차원에서 추진토록 협력"

(가칭)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1일 전북대에 따르면 양오봉 총장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이 지난 20일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을 만나 이 정책을 공식 전달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전국 9개 권역 거점국립대학을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서울대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미국의 UC(캘리포니아대학) 시스템과 유사한 대학 체계를 만들자는 구상이다.

이 정책이 추진되면 과도한 수도권 집중 및 입시경쟁으로 인한 폐해를 해소하고, 지역 우수 인재들이 지역에서 성장하며 국가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정책 제안을 받으며 "좋은 정책을 만들어 줘 감사하다"며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 살리기의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양오봉 총장은 "이번 정책 제안이 차기 정부의 국가 전략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긴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차정인 전 부산대학교 총장이 지난 20일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을 만나 (가칭)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와 관련된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밀히 협력하겠다"며 "정책의 실현으로 지역균형발전이 가속화되고 국가 전

체의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우석대학교는 21일 대학 본관 23층 원주·우석 전담대 W-SKY 23에서 '제2회 공생과 도전 전북혁신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은 박노준 총장, 이흥기 의장 등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는 모습이다.

## 우석대, '공생과 도전 전북혁신포럼' 개최

### RISE사업단 공식 출범... 지역혁신·산학협력 비전 제시 수소연료전지 포럼서 전문가 참여 수소산업 미래전략 공유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는 21일 대학 본관 23층 원주·우석 전담대 W-SKY 23에서 '제2회 공생과 도전 전북혁신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이번 포럼은 1부 '우석대학교 RISE사업단 출범식'과 2부 '제8회 우석 국제 수소연료전지 포럼'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포럼은 이흥기 의장의 개회사로 시작됐으며, 박노준 총장의 환영사와 서창훈 우석학원 이사장, 유희태 원주군수, 채수찬 전북RISE센터장, 이원욱 전 국회의원의 축사가 이어졌다. 포럼에 앞서 정희석 전주캠퍼스 RISE 단장은 대학의 RISE 사업 비전인

'WIN-RISE(Woosuk+INnovation)'와 추진 계획 등을 소개하고,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혁신 플랫폼 구축과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 산업과 인재 양성의 중심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진행된 제8회 우석 국제 수소연료전지 포럼은 해외 및 국내사례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됐다. 서창훈 이사장은 "수소라는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통찰과 전략을 함께 나누고, 대학과 지역사회, 나아가 세계를 연결하는 지속 가능한 협력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노준 총장은 "이번 포럼이 수소산

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우석대학교가 '수소중심대학'으로 도약하는 여정에 든든한 동반자가 돼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흥기 의장은 "국내외 전문가들이 기술과 정책을 공유하고, 국제 협력의 토대를 다졌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우석대학교는 수소연료전지 분야의 국제표준화와 산업 생태계 확산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관영 도지사는 축하 영상 메시지를 통해 "우석대학교는 수소 중심의 글로벌대학 선정을 목표로 힘찬 도전에 나서고 있다"며 "이번 포럼이 그 도전을 뒷받침하는 디딤돌이 되고, 우석대학교가 '수소중심대학'으로 우뚝 서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 전북교육청, 부교육감 주제 남원지역 행정실장과 간담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1일 남원교육지원청에서 유정기 부교육감 주재로 행정실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남원 지역 공·사립 행정실장 30여 명이 참석해 교육행정 발전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교육재정 운용,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 업무 효율화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특히 현장에서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공유했다. 유정기 부교육감은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일선 학교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교육행정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1일 남원교육지원청에서 유정기 부교육감 주재로 행정실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전북교육청, 개인정보 보호 전문교육 진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1일 미래교육연구원서 개인정보 보호 전문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교육(행정)기관 소속 개인정보 업무 담당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는 일선 학교 및 기관 실무자들의 인식 제고와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에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소

속 연구위원이 강사로 나서 교육기관에서 자주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례와 대응 방안,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 조항에 대한 실무 중심의 내용을 전달했다. 특히 사례 중심의 접근을 통해 실질적 업무 수행 능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뒀다. 참석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장은성 기자



서거석 교육감이 21일 전주대학교 JJA홀에서 명사 특강을 펼쳤다.

##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 서거석 교육감, 전주대서 명사 특강 사범대학 학생 중심으로 200여명 참석

서거석 교육감이 21일 전주대학교 JJA홀에서 명사 특강을 펼쳤다. 이날 특강에는 사범대학 학생을 중심으로 2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석했다. 특강은 명사의 일방적인 내용 전달 방식에서 벗어나 교육감과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공감토크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에 학생들은 서 교육감에게 △전북대 총장 재임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전북교육의 비전 △SI가 학생들의 학업에 미치는 영향 △진로 설정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대학 생활에서

꼭 추천하고 싶은 것 등에 대해 질문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때로는 흔들릴 수 있지만 자신을 믿고 꾸준히 나갈 수 있는 인내심을 갖는다면 그 꿈은 결코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소중한 인재"라며 "이 자리에 함께 한 한명 한명의 찬란한 여정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장은성 기자

### 전북교육청, 9월 1일자 교육장 임용후보자 공모

#### 내달 13일 최종 후보자 발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9월 1일자 교육장 임용후보자를 공개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원 자격은 현직 교장 또는 장학관, 교육연구관으로 1년 이상 재직된 사람으로, 지원 희망자는 직무수행계획서(교육지원청 운영계획서), 주요 활동 실적을 포함한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해 오는 26~28일까지 전북교육청 교원인사과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징계의결요구 중인 사람과 징계처분 말소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주요 4대 비위자(금품 및 향음주수·상습폭행·성폭행·성적조작)는 말소기간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이 제한된다. 주요 심사영역은 △교육자 소양 △직무수행능력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조직관리역량 △교육철학 및 소통역량 △전북교육 핵심정책 추진역량 등이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6월 13일 최종 임용후보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교육장은 지역교육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중요한 자리"라며 "전북교육청의 핵심정책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교육철학을 갖춘 능력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 지역아동센터 전북지원단

#### 다문화아동지원 수행기관 간담회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역아동센터 전북지원단(단장 최현영)은 21일 다문화아동지원사업 수행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LG의 지정기탁을 통해 진행되는 '우리마을 문화다리' 프로젝트로, 농촌 및 도시 내 다문화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을 대상으로 국제문화 리더십을 함양하는 데 목적을 뒀다. 이날 간담회에는 군산 오식도, 남원 노암, 익산 제일, 장수 대성, 정읍 하부 등 도내 5개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업의 추진 방향과 지역별 프로그램 운영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특히 다문화 아동의 문화적 정체성 확립과 공동체 리더십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 모델을 공유하며,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실행 가능성을 집중 조명했다. 이에 전북지원단은 오는 8월 아동자치회를 중심으로 아동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문화해설교류탐방캠프'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지역아동센터 전북지원단은 전북 지역 287개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교육, 컨설팅, 평가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 살아 숨쉬는 현장 중심 맞춤형 교육

### 전북교육연수원, '6급 지방공무원 장기교육과정' 현업적용도 평가결과 99점... '실효성 확인 계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원장 민완성)은 '6급 지방공무원 장기교육과정' 현업적용도 평가 결과 99점의 만족도를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6급 지방공무원 장기교육과정'은 6급 지방공무원을 선발, 6개월간 840시간 교육훈련을 통해 교육행정 전문가로 양성하는 것이다. 현업적용도 평가는 해당 교육과정에서 습득한 지식과 기술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향후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평가항목은 역량별 △직무관련성 △난이도 △교육내용 △교육방법 △

무활용도 △행동변화와 교육과정 전반이며, 특히 교육과정 만족도는 100점을 기록했다. 이에 교육연수원은 이를 토대로 정책 이해, 미래역량 강화, 실무중심 교육과정 고도화 방안을 마련, 하반기 '6급 핵심인재 양성 8기 교육과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민완성 원장은 "이번 분석은 6급 장기교육과정이 우리 연수원의 실무서 교육방향에 부합하며 교육의 실효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통해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실천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다문화가정 학생 이중언어 맞춤형 지원 강화

### 전북교육청, 201명 대상 부모 나라 언어교육... 지원 언어 등 확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도내 다문화가정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이중언어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부모 또는 모의 출신국 언어 학습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만족도 조사 결과 부모의 나라를 이해하고 언어를 배우는 데 도움이 됐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90% 이상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장은성 기자

이에 베트남어, 중국어 등 외국어에 능한 강사가 5월부터 11월까지 학교를 방문해 희망 학생의 수준에 맞춰 언어 학습을 돕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학생별로 20회씩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60여 명이던 강사가 80여 명으로 늘었고, 지원 언어도 7개에서 8개(베트남어, 중국어, 일본어, 우즈베크어, 크메르어, 타갈로그어, 몽골어, 러시아어)로 확대됐다. 지원 대상도 201명으로 지난해보다 30여 명 늘었다. /장은성 기자

## 전주대 로컬벤처학부, 로컬창업 주제 특강 진행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 로컬벤처학부(학부장 김시열)는 전북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크립톤 오민정 지역창업생태계팀장을 초청해 지역의 상권 활성화와 로컬창업을 주제로 지난 20일 전주대 자유관에서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특강에서는 로컬벤처학부 재학생을 비롯해 주제에 관심 있는 약 30명의 학생들이 참석했다. /장은성 기자

(주)크립톤은 수년간 전주에서 글로벌 상권 사업 등을 수행해오고 있으며, 오 팀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서 로컬창업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역의 상권 활성화 관점에서 로컬창업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의 기업(매장)이 아닌 상권으로서 어떻게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 그간의 경험과 조언을 공유했다. /장은성 기자